

##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윤서영\*\*  
Yoon, Suh Young  
정옥분\*\*\*  
Chung, Ock Boon

### ABSTRACT

Fathering practices were assessed by the modified version of the fathering Practices Scale while children's social adjustment was assessed by the Social Adjustment Scale in this study of 405 first to sixth grade children and their fathers. Fathering practices differed by father's age, education, occupation, amount of time with children, extent of participation in children's school activities, mother's job status, and children's birth order. Children's social adjustment varied by father's education, amount of time with children, and participation in children's school activities. There were correlations among all four factors of children's social adjustment and all eight factors of fathering practices. Father's responsibility for childre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children's social adjustment.

### I. 서론

우리 나라의 전통사회에서 자녀양육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은 엄부자모(嚴父慈母)였다.

이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수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아버지는 엄격하고 원칙적이어서 훈육 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보다 자애로운 존재로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현대사회의 가족 형태는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되면서 성별에 따라 책임이 구분되던 전통적인 부모역할 분담 형태는 변모해가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하는 만큼 활동적인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양육에 있어서 남성들과 여성들간의

\* 본 논문은 1999년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삼성데이터 시스템 연구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Woodworth, Belsky & Crnic, 1996). 즉, 전에는 어머니의 역할로만 여겨졌던 자녀양육을 아버지도 분담해야 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이 대두된 것이다.

정옥분 등(1997)은 우리 나라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 유형을 알아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자부자모(慈父慈母)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전통적 유형인 엄부자모(嚴父慈母) 유형에서 벗어남을 보고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도 부모 중 특히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준다. 유안진(1986)도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숙어인 부전자전(父傳子傳)이라는 말이 가족의 기능에서 자녀의 사회화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여 시대에 맞게 변화된 시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eggerichs(1992)는 자녀양육에 보다 도움을 주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아버지 역할을 강력한 역할이라고 표현하였다. 효과적인 아버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김희숙, 1996; 조선휘, 1998; Canfield, 1995; Eggerichs, 1992; Roid & Canfield, 1994)는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연구와는 달리 아버지 역할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Roid와 Canfield(1994)는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버지와 무선적으로 표집한 아버지간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 자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아버지, 일관성 있는 아버지, 위기 상황에서 분별력이 있고 가정에 일정한 수입을 제공하는 아버지,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를 기울여 잘 들어주는 아버지, 정신적으로 준비된 아버지의 7가지 효과적인 아버지 역할을 발견해 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Lamb(1986)이 아버지 역할의 두드러진 특징이 도덕 선생님으로부터 생계유지

자, 성역할 모델, 새로운 양육적 아버지(new nurturant father)의 순서로 역할이 변화해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유사하다.

또한 Harris와 Morgan(1991)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에서 벗어나서 부모 역할의 모든 측면들을 다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아버지를 “새로운 아버지(new father)”라고 하였고, 이러한 아버지의 특징은 양육적(nurturing), 지지적(supportive), 동료적(companionate)이라고 하였다. Blankenhorn(1995)도 매일의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새로운 아버지상(new fatherhood)”이라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양육자로서 유능하지만 상호작용의 양, 빈도 및 활동 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관점(이주리, 1994; Russell & Russell, 1987; Youniss & Smollar, 1985)을 지지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각기 다른 종류의 자극은 부모 중 한쪽에게서만 받는 자극에 비해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Lamb, Pleck & Levin, 1985; Luster & Okagaki, 1996), 어머니와는 다른 고유하고 독특한 아버지만의 역할수행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는 특히 급속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으로 인한 많은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며,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기가 속한 문화 속에서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개념을 발달시키게 되며, 부모로부터 점점 더 독립적이 되고 다른 아동들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가치나 태도를 인식하여 가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적·사회적인 변화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Papalia, Olds & Feldman, 1991).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가정 내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부모 특히 아버지와 질적으로 우수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성숙과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된다(Coley, 1998).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 각자가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며, 가족구성원 서로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적응도 달라지리라 기대된다. 즉, 맥락적인 특성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부모의 특성 또한 그러한 맥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Bronfenbrenner, 1986; Darling & Steinberg, 1993; Elder, Van Nguyen & Caspi, 1985; Lerner, 1986; Luster & Okagaki, 1996), 가족이라는 체계 자체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체계 내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하느냐가 아동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아동기에 형성하게 되는 다양한 관계 중에서 특히 가족 내에서 느끼는 사랑과 수용, 안정감과 같은 정서적인 지지는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사건에 직면했을 때 행동장애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한미현, 1996; 한중혜, 1996; Dubow & Luster, 1990; Dubow & Tisak, 1989; Jose et al., 1998). 특히 부모는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중요한 환경으로서 아동은 부모를 통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 부모의 성격과 정서상태는 곧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표현과 양육상태를 결정하고 부모의 요구경향과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소혜, 1995; Huntsinger, Jose & Larson, 1998).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자녀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역할수행이 아동의 적응 행동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신춘자, 1992; 임선화,

1988; 조창발, 1994; Amato, 1994; Blankenhorn, 1995;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 Mott, Kowaleski-Jones & Menaghan, 1997; Pettit, Bates & Dodge, 1997; Punamaki, Qouta & El Sarraj, 1997; Steinberg, Lamborn, Darling, Mounts & Dornbusch, 1994; Veneziano & Rohner,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학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버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자녀와 보내는 시간, 학교행사 참여정도, 어머니 취업형태, 아동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보다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아버지와 아동간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를 위한 실질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자녀와 보내는 시간, 학교행사 참여정도, 어머니의 취업형태,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차이가 있는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와 보내는 시간, 학교행사 참여정도, 어머니의 취업형태,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3.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관계가 있는가?
4.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제 하위요인(자녀와의 대화,

자녀양육의 일관성,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자녀부양, 자녀이해, 자녀사랑, 자녀

교육) 중 어떤 요인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3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 1학년-6학년 학급의 남녀 아동 407명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표집 지역을 중산층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6학년 학생과 그들의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역할수행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이전의 영·유아기에 비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동기에는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더욱 중요시되기 때문이다(Lamb, 1995). 둘째, 아동의 학년 분포를 넓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에서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이다. 셋째, 이 시기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감에 따라 아동이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인의 기초를 닦게 되는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조복희, 정옥분과 유가효, 199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 2. 측정도구

#### 1) 아버지의 역할수행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아버지 역할수행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anfield(1995)가 사용한 아버지 역할수행 척도(Fathering Practices Scale : FPS)를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은 거친 조선화(1998)의 척도를 연구자가 수

정·보완하고 재명명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조선화(1998)의 역할수행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하고 8가지 하위요인의 명칭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 재명명 작업을 하였다. 즉, 자녀양육 역할은 나머지 하위요인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 남편의 역할은 자녀와의 관계보다 아내와의 관계를 더 강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으로,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은 자녀에 대한 수용과 인정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녀사랑으로 재명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명명한 8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자녀와의 대화”, 요인 2는 “자녀양육의 일관성”, 요인 3은 “자녀에 대한 책임”, 요인 4는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요인 5는 “자녀부양”, 요인 6은 “자녀이해”, 요인 7은 “자녀사랑”, 요인 8은 “자녀교육”이다. 따라서 역할수행 척도는 8가지 하위요인에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화(1998)가 보고한 아버지 역할수행 척도의 신뢰도는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alpha = .74-.89$ 로 나타났고, 전체 Cronbach  $\alpha = .95$ 이다. 조선화(1998)가 보고한 척도의 신뢰도와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또한 조선화(1998)는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법과 varimax 회전법을 적용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407)

| 변수               | 구분       | 빈도   | (%)       | 변수          | 구분        | 빈도   | (%)  |
|------------------|----------|------|-----------|-------------|-----------|------|------|
| 아버지<br>연령        | 만 30-34세 | 21   | 5.2       | 어머니<br>연령   | 만 30-34세  | 1    | .2   |
|                  | 만 35-39세 | 128  | 31.4      |             | 만 35-39세  | 65   | 16.0 |
|                  | 만 40-44세 | 198  | 48.7      |             | 만 40-44세  | 223  | 54.8 |
|                  | 만 45세 이상 | 60   | 14.7      |             | 만 45세 이상  | 118  | 29.0 |
| 아버지<br>교육수준      | 중졸 이하    | 3    | .7        | 어머니<br>교육수준 | 중졸 이하     | 4    | 1.0  |
|                  | 고등학교 졸   | 78   | 19.2      |             | 고등학교 졸    | 152  | 37.3 |
|                  | 대학교 졸    | 233  | 57.2      |             | 대학교 졸     | 223  | 54.8 |
|                  | 대학원 이상   | 93   | 22.9      |             | 대학원 이상    | 28   | 6.9  |
| 아버지<br>직업        | 무직 및 기타  | 10   | 2.5       | 어머니<br>취업형태 | 취업        | 103  | 25.3 |
|                  | 생산기능직    | 16   | 3.9       |             | 시간제       | 33   | 8.1  |
|                  | 서비스직     | 35   | 8.6       |             | 비취업       | 271  | 66.6 |
|                  | 판매직      | 83   | 20.4      | 가정의<br>월수입  | 100만원 이하  | 10   | 2.5  |
|                  | 사무직      | 79   | 19.4      |             | 101-150만원 | 63   | 15.5 |
|                  | 행정관리직    | 96   | 23.6      |             | 151-200만원 | 96   | 23.6 |
|                  | 전문기술직    | 88   | 21.6      |             | 201-250만원 | 85   | 20.9 |
|                  |          |      | 251-300만원 |             | 60        | 14.7 |      |
|                  |          |      | 300만원 이상  | 93          | 22.8      |      |      |
| 아버지<br>종교        | 기독교      | 113  | 27.8      | 가족형태        | 핵가족       | 372  | 91.4 |
|                  | 천주교      | 53   | 13.0      |             | 확대가족      | 35   | 8.6  |
|                  | 불교       | 75   | 18.4      | 아동<br>학년    | 1학년       | 67   | 16.5 |
|                  | 무종교      | 154  | 37.8      |             | 2학년       | 66   | 16.2 |
|                  | 기타       | 12   | 3.0       |             | 3학년       | 67   | 16.5 |
|                  |          |      | 4학년       |             | 71        | 17.4 |      |
|                  |          |      | 5학년       |             | 68        | 16.7 |      |
|                  |          |      | 6학년       |             | 68        | 16.7 |      |
| 자녀와<br>보내는<br>시간 | 1시간 미만   | 71   | 17.5      | 아동<br>성별    | 남         | 223  | 54.8 |
|                  | 1-2시간 미만 | 125  | 30.7      |             | 여         | 184  | 45.2 |
|                  | 2-3시간 미만 | 88   | 21.6      | 출생순위        | 외동이       | 59   | 14.5 |
| 3시간 이상           | 123      | 30.2 | 첫째        |             | 190       | 46.7 |      |
| 학교행사<br>참여정도     | 많이 참여    | 16   | 3.9       |             | 중간        | 15   | 3.7  |
|                  | 보통 참여    | 136  | 33.4      |             | 막내        | 143  | 35.1 |
|                  | 별로 참여 않음 | 255  | 62.7      |             |           |      |      |
| 자녀수              | 1명       | 59   | 14.5      |             |           |      |      |
|                  | 2명       | 291  | 71.5      |             |           |      |      |
|                  | 3명 이상    | 57   | 14.0      |             |           |      |      |

<표 2> 아버지 역할수행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하위 요인       | 문항수 | 문항 번호 |        | Cronbach $\alpha$ | Cronbach $\alpha$ |
|-------------|-----|-------|--------|-------------------|-------------------|
|             |     |       | 역채점 문항 | 조선화(1998)         | 본 연구              |
| 자녀와의 대화     | 4   | 1-4   |        | .87               | .85               |
| 자녀양육의 일관성   | 5   | 5-9   |        | .80               | .76               |
| 자녀에 대한 책임   | 7   | 10    | 11-16  | .81               | .82               |
|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 5   | 17-21 |        | .74               | .82               |
| 자녀부양        | 7   | 22-28 |        | .87               | .85               |
| 자녀이해        | 7   | 29-35 |        | .89               | .89               |
| 자녀사랑        | 6   | 36-41 |        | .89               | .87               |
| 자녀교육        | 7   | 42-48 |        | .88               | .86               |

<표 3> 아버지 역할수행 척도의 요인부하량

| 하위 요인       | 문항수 | 문항 번호 |        | 요인부하량     |
|-------------|-----|-------|--------|-----------|
|             |     |       | 역채점 문항 | 조선화(1998) |
| 자녀와의 대화     | 4   | 1-4   |        | .69-.77   |
| 자녀양육의 일관성   | 5   | 5-9   |        | .53-.84   |
| 자녀에 대한 책임   | 7   | 10    | 11-16  | .43-.89   |
|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 5   | 17-21 |        | .58-.79   |
| 자녀부양        | 7   | 22-28 |        | .62-.81   |
| 자녀이해        | 7   | 29-35 |        | .46-.80   |
| 자녀사랑        | 6   | 36-41 |        | .51-.79   |
| 자녀교육        | 7   | 42-48 |        | .45-.73   |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가지 하위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의 요인부하량은 .43 이상이며, 각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69.48%이다. 조선화(1998)가 보고한 척도의 하위요인별 요인부하량은 <표 3>과 같다.

## 2) 아동의 사회적 적응

본 연구에서는 정원식과 김호권(1992)의 '성격 진단검사' 문항 중 척도별로 아동의 사회성과 관련된 총 60문항을 추출하여 이수자(1994)가 작성한 사회적 적응 척도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고 재명명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수자

<표 4> 아동의 사회적 적응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하위 요인 | 문항수 | 문항 번호   |  | Cronbach $\alpha$ | Cronbach $\alpha$ |
|-------|-----|---|--|-------------------|-------------------|
|       |     |   | 역채점 문항   | 이수자(1994)         | 본 연구              |
| 가족적응  | 15  | 1, 5, 9,13,17,<br>21,25,29,33,37,<br>41,45,49,53,57 | 1, 5, 9,13,17,<br>21,33,37,<br>45,49,53          | .74               | .81               |
| 대인적응  | 15  | 2, 6,10,14,18,<br>22,26,30,34,38,<br>42,46,50,54,58 | 6,10,18,<br>22,26,<br>50,54,58                   | .76               | .83               |
| 자아적응  | 15  | 3, 7,11,15,19,<br>23,27,31,35,39,<br>43,47,51,55,59 | 3, 7,11,15,19,<br>23,27,31,<br>47,51,59          | .67               | .83               |
| 정서적응  | 15  | 4, 8,12,16,20,<br>24,28,32,36,40,<br>44,48,52,56,60 | 8,12,16,20,<br>24,28,32,36,40,<br>44,48,52,56,60 | .72               | .79               |

(1994)의 사회적 적응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4 가지 하위요인의 명칭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 재 명명 작업을 하였다. 즉, 교우관계는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맺는 원만한 관계와 집단생활에서의 적응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대인적응으로, 대응성은 개인이 내적으로 갖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아적응으로, 적응성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갖는 안정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응으로 재 명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명명한 4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가족적응”, 요인 2는 “대인적응”, 요인 3은 “자아적응”, 요인 4는 “정서적응”이다. 따라서 사회적 적응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에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

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2점 척도로 “예(1)”와 “아니오(2)”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수자(1994)는 하위척도별 신뢰도를 제시하였고, 이 척도를 사용한 김경은(1997)도 신뢰도를 Cronbach  $\alpha = .75-.79$ 로 보고한 바 있다. 이수자(1994)가 보고한 척도의 신뢰도와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또한 이수자(1994)는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관계, 교우관계, 대응성, 적응성의 4가지 하위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의 요인부하량은 .20 이상임을 밝히고 있다.

통계처리 과정에서 긍정적인 문항은 아동이 선택한 점수 그대로 채점하였지만,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반대로 주어 채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항은 1점으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항은

0점으로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요인의 적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역채점 문항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 3.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서초구의 1개 초등학교의 아동과 아버지 각 30명을 대상으로 1998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미 전달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9월 11일부터 18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담임 선생님께 실시 방법을 설명한 후,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교실에서 아동용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아동용 질문지는 담임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고, 아버지용 질문지는 담임 선생님이 아동을 통해 아버지에게 배부하였는데, 아버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말을 이용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질문지를 아버지가 작성한 후, 담임 선생님이 아동을 통해 수거한 것을 2-3일 후에 본 연구자가 담임 선생님이로부터 회수하였다. 아동용과 아버지용 질문지 각각 426부씩 852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828부만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97.1%였다. 회수된 자료 중

부모가 별거중이거나 부실 기재되었거나 쌍을 맞출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아동과 아버지 각각 407부씩 총 814부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모든 경우에 유의 수준은  $\alpha = .05$ 로 하고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 처리를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아버지 역할수행 척도와 아동의 사회적 적응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의 차이와 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 검증으로 Scheffé의 다중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률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버지 역할수행의 제 하위변인 중 어떤 변인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요인별 평균을

산출하고,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 검증으로 Scheffé의 다중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수행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러나 아버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자녀와 보내는 시간, 학교행사 참여정도, 어머니 취업형태,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에 따라 자녀와의 대화와 자녀사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 검증 결과만 30-34세의 아버지가 만 40-44세의 아버지보다 자녀사랑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통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F값이 유의한 경우라도 드물게는 Scheffé 검증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라 역할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 검증 결과 고등학교 졸업의 아버지가 자녀부양에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의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의 아버지가 대학교 졸업의 아버지보다 자녀와의 대화, 자녀이해, 전체 역할수행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중학교 졸업 이하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자녀사랑에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의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아버지 직업에 있어서는 자녀부양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 검증 결과 무직 및 기타에 속한 아버지가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의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낮은 역할수행 점수를 나타냈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 따라 역할수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 검증 결과 자녀와의 대화, 자녀부양에서 3시간 이상을 보내는 아버지가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을 보내는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에서는 3시간 이상을 보내는 아버지가 1시간 미만을 보내는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이해, 자녀사랑, 자녀교육, 전체 역할수행에서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3시간 이상을 보내는 아버지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행사 참여정도에 따라 역할수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 검증 결과 자녀의 학교행사에 많이 참여하거나 보통 참여하는 아버지가 학교행사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보다 자녀와의 대화,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자녀부양, 자녀사랑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자녀이해, 자녀교육, 전체 역할수행에서는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 보통 참여하는 아버지, 별로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일관성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취업형태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 검증 결과 취업주부 가정의 아버지가 전업주부 가정의 아버지보다 자녀이해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어머니가 시간제 직업을 가진 가정의 아버지가 전업주부 가정의 아버지보다 자녀교육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출생순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 검증 결과 자녀사랑에서 외동이의 아버지가 막내의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높은 역할수행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자녀교육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적응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요인별 평균을 산출하고,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 검증으로 Scheffé의 다중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

| 구분       | 집 단       | 자녀와의 대화 |          | 자녀양육의 일관성 |           | 자녀에 대한 책임 |         |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           | 자녀사랑    |   | 자녀교육 |   | 아버지 역할수행 |   |
|----------|-----------|---------|----------|-----------|-----------|-----------|---------|-------------|-----------|---------|---|------|---|----------|---|
|          |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 아버지 연령   | 만 30-34세  | 4.21    | 3.65     | 4.07      | 3.53      | 4.01      | 3.82    | 4.45 a      | 3.72      | 3.93    |   |      |   |          |   |
|          | 만 35-39세  | 3.94    | 3.59     | 4.02      | 3.72      | 4.01      | 3.75    | 4.05 ab     | 3.53      | 3.83    |   |      |   |          |   |
|          | 만 40-44세  | 4.09    | 3.66     | 4.02      | 3.71      | 3.96      | 3.81    | 4.04 b      | 3.59      | 3.86    |   |      |   |          |   |
|          | 만 45세 이상  | 4.19    | 3.65     | 4.06      | 3.67      | 3.97      | 3.75    | 4.02 ab     | 3.48      | 3.85    |   |      |   |          |   |
| F        | ※ 3.107 * | .384    | .146     | .638      | .271      | .410      | 2.692 * | 1.024       | .411      |         |   |      |   |          |   |
| 아버지 교육수준 | 중졸 이하     | 4.00 ab | 3.27     | 3.05 b    | 3.20 b    | 3.48 ab   | 3.38 ab | 3.00 b      | 3.05      | 3.30 ab |   |      |   |          |   |
|          | 고등학교 졸    | 3.86 b  | 3.52     | 3.95 ab   | 3.54 ab   | 3.77 b    | 3.61 b  | 3.94 ab     | 3.44      | 3.70 b  |   |      |   |          |   |
|          | 대학교 졸     | 4.12 a  | 3.66     | 4.02 a    | 3.76 a    | 4.05 a    | 3.82 a  | 4.11 a      | 3.58      | 3.88 a  |   |      |   |          |   |
|          | 대학원 이상    | 4.10 ab | 3.69     | 4.07 a    | 3.71 a    | 4.01 a    | 3.84 ab | 4.05 a      | 3.62      | 3.90 ab |   |      |   |          |   |
| F        | 3.683 *   | 1.954   | 3.903 ** | 3.137 *   | 6.131 *** | 3.754 *   | 4.427 * | 2.193       | 6.041 *** |         |   |      |   |          |   |
| 아버지 직업   | 무직 및 기타   | 4.15    | 3.54     | 4.04      | 3.54      | 3.34 b    | 3.63    | 4.00        | 3.53      | 3.72    |   |      |   |          |   |
|          | 생산기능직     | 3.97    | 3.88     | 4.00      | 3.74      | 3.81 ab   | 3.69    | 4.11        | 3.43      | 3.83    |   |      |   |          |   |
|          | 서비스직      | 4.09    | 3.67     | 3.88      | 3.58      | 3.99 ab   | 3.72    | 4.11        | 3.48      | 3.82    |   |      |   |          |   |
|          | 판매직       | 4.01    | 3.53     | 4.10      | 3.67      | 3.90 ab   | 3.78    | 4.05        | 3.62      | 3.83    |   |      |   |          |   |
|          | 사무직       | 4.04    | 3.69     | 3.98      | 3.69      | 3.93 ab   | 3.73    | 4.05        | 3.54      | 3.83    |   |      |   |          |   |
|          | 행정관리직     | 4.04    | 3.63     | 4.11      | 3.77      | 4.17 a    | 3.80    | 4.05        | 3.62      | 3.90    |   |      |   |          |   |
|          | 전문기술직     | 4.16    | 3.64     | 3.98      | 3.72      | 4.00 a    | 3.86    | 4.05        | 3.52      | 3.87    |   |      |   |          |   |
| F        | .680      | 1.181   | 1.108    | .612      | 5.073 *** | .739      | .088    | .609        | .471      |         |   |      |   |          |   |

\* p < .05 \*\* p < .01 \*\*\* p < .001

abc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 Scheffé 검증 결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구분         | 집 단    | 자녀를 위한 부모협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와의 대화     |         | 자녀양육의 자원에 대한 일관성 |           | 자녀양육 책임   |           | 자녀부양      |           | 자녀이해      |        | 자녀사랑 |        | 자녀교육   |        | 아버지 역할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와 보내는 시간 | 1시간 미만 | 3.82 b      | 3.57    | 3.66 c           | 3.47 b    | 3.77 b    | 3.46 c    | 3.78 c    | 3.29 c    | 3.60 c    | 4.00 b | 3.59 | 3.94 b | 3.65 a | 3.91 b | 3.75 b   | 3.97 bc | 3.49 bc | 3.80 b | 4.07 ab | 3.65 | 4.11 ab | 3.73 ab | 4.01 ab | 3.84 ab | 4.15 ab | 3.63 ab | 3.89 ab | 4.27 a | 3.72 | 4.27 a | 3.83 a | 4.15 a | 3.95 a | 4.24 a  | 3.74 a | 4.02 a |
|            | F      | 9.320***    | 1.693   | 21.234***        | 5.644**   | 8.555***  | 13.870*** | 9.841***  | 9.934***  | 17.447*** | 4.64 a | 3.85 | 4.59 a | 4.09 a | 4.40 a | 4.49 a   | 4.41 a  | 4.21 a  | 4.33 a | 4.26 a  | 3.71 | 4.24 a  | 3.92 a  | 4.14 a  | 3.97 b  | 4.32 a  | 3.83 b  | 4.05 b  | 3.92 b | 3.58 | 3.88 b | 3.56 b | 3.87 b | 3.64 c | 3.90 b  | 3.38 c | 3.72 c |
|            | F      | 23.322***   | *3.650* | 27.418***        | 20.977*** | 16.371*** | 35.043*** | 24.358*** | 39.470*** | 46.218*** | 4.16   | 3.68 | 4.06   | 3.81   | 4.01   | 3.93 a   | 4.15    | 3.67 ab | 3.92   | 4.07    | 3.63 | 4.03    | 3.73    | 3.97    | 3.79 ab | 4.06    | 3.73 a  | 3.89    | 4.03   | 3.62 | 4.02   | 3.67   | 3.97   | 3.72 b | 4.02    | 3.50 b | 3.82   |
|            | F      | 1.698       | .412    | .189             | .932      | .138      | 5.215**   | 1.480     | 4.391*    | 2.310     | 4.11   | 4.01 | 4.04   | 3.72   | 3.99   | 3.79     | 4.01    | 3.57    | 3.86   | 4.01    | 4.01 | 4.01    | 3.67    | 3.97    | 3.77    | 4.11    | 3.55    | 3.84    | 2.306  | .344 | .188   | .642   | .104   | .190   | 2.357   | .135   | .094   |
| 출생순위       | 외동     | 4.12        | 3.74    | 4.09             | 3.62      | 4.08      | 3.88      | 4.26 a    | 3.75      | 3.94      | 4.01   | 3.64 | 4.02   | 3.74   | 3.96   | 3.75     | 4.14 ab | 3.56    | 3.85   | 4.13    | 3.49 | 4.21    | 3.65    | 4.00    | 3.90    | 4.09 ab | 3.50    | 3.87    | 4.11   | 3.59 | 3.99   | 3.69   | 3.96   | 3.77   | 3.92 b  | 3.38   | 3.80   |
|            | F      | .969        | 1.318   | .959             | .584      | .831      | 1.077     | 4.564**   | *2.764*   | 1.258     | 4.12   | 3.64 | 4.02   | 3.74   | 3.96   | 3.75     | 4.14 ab | 3.56    | 3.85   | 4.13    | 3.49 | 4.21    | 3.65    | 4.00    | 3.90    | 4.09 ab | 3.50    | 3.87    | 4.11   | 3.59 | 3.99   | 3.69   | 3.96   | 3.77   | 3.92 b  | 3.38   | 3.80   |
|            | F      | 9.320***    | 1.693   | 21.234***        | 5.644**   | 8.555***  | 13.870*** | 9.841***  | 9.934***  | 17.447*** | 4.12   | 3.74 | 4.09   | 3.62   | 4.08   | 3.88     | 4.26 a  | 3.75    | 3.94   | 4.01    | 3.64 | 4.02    | 3.74    | 3.96    | 3.75    | 4.14 ab | 3.56    | 3.85    | 4.13   | 3.49 | 4.21   | 3.65   | 4.00   | 3.90   | 4.09 ab | 3.50   | 3.87   |
|            | F      | 23.322***   | *3.650* | 27.418***        | 20.977*** | 16.371*** | 35.043*** | 24.358*** | 39.470*** | 46.218*** | 4.16   | 3.68 | 4.06   | 3.81   | 4.01   | 3.93 a   | 4.15    | 3.67 ab | 3.92   | 4.07    | 3.63 | 4.03    | 3.73    | 3.97    | 3.79 ab | 4.06    | 3.73 a  | 3.89    | 4.03   | 3.62 | 4.02   | 3.67   | 3.97   | 3.72 b | 4.02    | 3.50 b | 3.82   |

\* p < .05 \*\* p < .01 \*\*\* p < .001

abc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Scheffe 검증 결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적응

| 구 분       | 집 단        | 가족적응      | 대인적응       | 자아적응       | 정서적응       | 아동의 사회적 적응 |
|-----------|------------|-----------|------------|------------|------------|------------|
|           |            | M         | M          | M          | M          | M          |
| 아버지 연령    | 만 30-34세   | .939      | .848       | .918       | .898       | .901       |
|           | 만 35-39세   | .900      | .784       | .858       | .858       | .850       |
|           | 만 40-44세   | .902      | .791       | .852       | .875       | .855       |
|           | 만 45세 이상   | .919      | .806       | .882       | .886       | .873       |
|           | F          | .592      | .578       | 1.097      | .627       | .908       |
| 아버지 교육수준  | 중졸 이하      | .822      | .556 ab    | .578 c     | .733       | .672 b     |
|           | 고등학교 졸     | .894      | .734 b     | .803 bc    | .847       | .820 ab    |
|           | 대학교 졸      | .905      | .816 a     | .879 a     | .876       | .870 a     |
|           | 대학원 이상     | .911      | .796 ab    | .877 ab    | .889       | .867 a     |
|           | F          | .560      | 3.982 **   | 6.105 ***  | 1.628      | 3.913 **   |
| 아버지 직업    | 무직 및 기타    | .980      | .773       | .820       | .873       | .862       |
|           | 생산기능직      | .913      | .804       | .829       | .813       | .840       |
|           | 서비스직       | .884      | .741       | .817       | .855       | .824       |
|           | 판매직        | .917      | .773       | .867       | .871       | .857       |
|           | 사무직        | .890      | .794       | .869       | .847       | .849       |
|           | 행정관리직      | .915      | .832       | .881       | .906       | .884       |
|           | 전문기술직      | .900      | .793       | .858       | .878       | .857       |
|           | F          | .831      | .975       | .722       | 1.42       | .831       |
|           | 자녀와 보내는 시간 | 1시간 미만    | .873 b     | .715 b     | .786 b     | .810 b     |
| 1-2시간 미만  |            | .880 b    | .773 b     | .856 ab    | .848 b     | .839 b     |
| 2-3시간 미만  |            | .899 b    | .786 ab    | .864 ab    | .880 ab    | .857 b     |
| 3시간 이상    |            | .957 a    | .866 a     | .911 a     | .928 a     | .915 a     |
| F         |            | 7.449 *** | 8.431 ***  | 7.288 ***  | 9.280 ***  | 11.440 *** |
| 학교행사 참여정도 | 많이 참여      | .983 a    | .963 a     | .983 a     | .958 a     | .972 a     |
|           | 보통 참여      | .939 a    | .896 a     | .929 a     | .935 a     | .925 a     |
|           | 별로 참여 없음   | .883 b    | .729 b     | .818 b     | .834 b     | .816 b     |
|           | F          | 8.460 *** | 35.933 *** | 21.957 *** | 20.190 *** | 32.037 *** |
| 어머니 취업형태  | 취업         | .918      | .823       | .905       | .895       | .885       |
|           | 시간제        | .915      | .788       | .873       | .873       | .862       |
|           | 비취업        | .900      | .784       | .852       | .863       | .850       |
|           | F          | .556      | 1.207      | 1.485      | 1.338      | 1.335      |
| 아동 성별     | 남          | .901      | .793       | .861       | .873       | .857       |
|           | 여          | .912      | .795       | .863       | .872       | .861       |
|           | F          | .585      | .016       | .017       | .003       | .069       |
| 출생순위      | 외동이        | .921      | .787       | .873       | .887       | .867       |
|           | 첫째         | .896      | .792       | .862       | .861       | .853       |
|           | 중간         | .933      | .816       | .916       | .929       | .899       |
|           | 막내         | .911      | .787       | .851       | .876       | .856       |
|           | F          | .678      | .246       | .675       | 1.045      | .553       |

\*\* p < .01 \*\*\* p < .001

abc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버지 연령,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 취업형태,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 교육수준, 자녀와 보내는 시간, 학교행사 참여정도에 따른 사회적 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라 대인적응과 자아적응, 전체 사회적 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 검증 결과 고등학교 졸업 아버지의 아동이 대학교 졸업 아버지의 아동보다 대인적응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고, 중학교 졸업 이하 아버지의 아동이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아버지의 아동보다 자아적응, 전체 사회적 적응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 따라 사회적 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 검증 결과 3시간 이상 아버지의 아동이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아버지의 아동보다 가족적응, 전체 사회적 적응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대인적응, 정서적응에서는 3시간 이상, 2-3시간 미만 아버지의 아동이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자아적응에서는 3시간 이상 아버지의 아동이 1시간 미만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행사 참여정도에 따라 사회적 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 검증 결과 자녀의 학교행사에 많이 참여하거나 보통 참여하는 아버지의 아동이 학교행사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의 아동보다 가족적응, 대인적응, 자아적응, 정서적응, 전체 사회적 적응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 3.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역할수행의 각 하위요인과 사회적 적응의 각 하위요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간에는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과 아버지 역할수행의 8가지 하위요인간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p < .001$ ).

이를 아버지 역할수행의 하위요인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역할수행 중 자녀와의 대화의 경우 자아적응( $r=.473$ ), 대인적응( $r=.466$ )과 상관이 높았고, 자녀양육의 일관성의 경우에는 대인적응( $r=.383$ )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책임은 대인적응( $r=.547$ ), 정서적응( $r=.507$ ), 자아적응( $r=.499$ ), 가족적응( $r=.437$ ) 순으로 매우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에서는 대인적응( $r=.467$ ), 자아적응( $r=.437$ )과 상관을 보였다. 자녀부양은 대인적응( $r=.502$ ), 정서적응( $r=.443$ )과 상관이 높았고, 자녀이해의 경우에는 대인적응( $r=.522$ ), 자아적응( $r=.434$ ), 정서적응( $r=.433$ ) 순으로 상관이 높았다. 자녀사랑의 경우에는 대인적응( $r=.529$ ), 정서적응( $r=.498$ )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자녀교육은 대인적응( $r=.528$ ), 정서적응( $r=.490$ )과 상관이 높았다.

### 4.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제 하위요인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얼마나 잘 예언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하위요인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종속

<표 7> 아버지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상관관계

|             | 가족적응     | 대인적응     | 자아적응     | 정서적응     |
|-------------|----------|----------|----------|----------|
| 자녀와의 대화     | .414 *** | .466 *** | .473 *** | .430 *** |
| 자녀양육의 일관성   | .271 *** | .383 *** | .321 *** | .315 *** |
| 자녀에 대한 책임   | .436 *** | .547 *** | .499 *** | .507 *** |
|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 .335 *** | .467 *** | .437 *** | .405 *** |
| 자녀부양        | .346 *** | .502 *** | .433 *** | .443 *** |
| 자녀이해        | .411 *** | .522 *** | .434 *** | .433 *** |
| 자녀사랑        | .394 *** | .529 *** | .475 *** | .498 *** |
| 자녀교육        | .380 *** | .528 *** | .454 *** | .490 *** |

\*\*\* p < .001

<표 8>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중다회귀분석

| 예언변인       |             | B    | $\beta$ | R <sup>2</sup> | R <sup>2</sup> 누적량 | F           |
|------------|-------------|------|---------|----------------|--------------------|-------------|
| 아동의 사회적 적응 | 자녀에 대한 책임   | .066 | .255    | .361           | .361               | 228.845 *** |
|            | 자녀사랑        | .045 | .188    | .090           | .451               | 66.438 ***  |
|            | 자녀와의 대화     | .043 | .175    | .040           | .491               | 31.619 ***  |
|            | 자녀부양        | .039 | .145    | .029           | .520               | 24.125 ***  |
|            |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 .036 | .147    | .017           | .537               | 14.821 ***  |
|            | 자녀양육의 일관성   | .029 | .110    | .010           | .547               | 8.693 **    |

\*\*p < .01    \*\*\* p < .001

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 전체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6가지 하위요인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54.7%였다. 아동의 사회적 적응 전체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예언변

인은 자녀에 대한 책임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36.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를 사회적 적응 제 하위요인별로 예언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족적응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4가지 하위요인이 가족적응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27.6%였다. 가족적응에 기여도가

<표 9> 아동의 사회적 적응 하위요인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중다회귀분석

| 예언변인  |             | B         | $\beta$ | R <sup>2</sup> | R <sup>2</sup> 누적량 | F           |
|-------|-------------|-----------|---------|----------------|--------------------|-------------|
| 가족 적응 | 자녀에 대한 책임   | .059      | .224    | .190           | .190               | 95.134 ***  |
|       | 자녀와의 대화     | .048      | .192    | .056           | .246               | 29.732 ***  |
|       | 자녀이해        | .044      | .159    | .023           | .269               | 12.694 ***  |
|       |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 .024      | .098    | .007           | .276               | 3.907 *     |
| 대인 적응 | 자녀에 대한 책임   | .080      | .212    | .299           | .299               | 172.953 *** |
|       | 자녀이해        | .046      | .116    | .083           | .379               | 54.026 ***  |
|       | 자녀양육의 일관성   | .050      | .131    | .034           | .416               | 23.358 ***  |
|       |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 .047      | .131    | .025           | .441               | 17.975 ***  |
|       | 자녀사랑        | .051      | .148    | .017           | .458               | 12.726 ***  |
|       | 자녀부양        | .051      | .128    | .009           | .467               | 7.091 **    |
|       | 자녀와의 대화     | .033      | .092    | .005           | .473               | 4.003 *     |
|       | 자아 적응       | 자녀에 대한 책임 | .065    | .204           | .249               | .249        |
| 정서 적응 | 자녀와의 대화     | .061      | .203    | .073           | .321               | 43.201 ***  |
|       |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 .048      | .159    | .039           | .360               | 24.560 ***  |
|       | 자녀사랑        | .040      | .138    | .016           | .376               | 10.115 **   |
|       | 자녀부양        | .041      | .122    | .010           | .386               | 6.445 *     |
|       | 자녀에 대한 책임   | .065      | .225    | .257           | .257               | 139.863 *** |
| 정서 적응 | 자녀사랑        | .053      | .198    | .073           | .330               | 43.918 ***  |
|       | 자녀부양        | .044      | .145    | .025           | .355               | 15.680 ***  |
|       | 자녀와의 대화     | .036      | .131    | .014           | .369               | 8.834 **    |
|       |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 .029      | .107    | .008           | .377               | 5.184 *     |

\* p < .05    \*\*p < .01    \*\*\* p < .001

가장 높은 예언변인은 자녀에 대한 책임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19.0%이었다.

대인적응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7가지 하위요인이 대인적응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47.3%였다. 대인적응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예언변인은 자녀에 대한 책임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29.9%이었다.

자아적응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5가지 하위요인이 자아적응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38.6%였다. 자아적응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예언변인은 자녀에 대한 책임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24.9%이었다.

정서적응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5가지 하위요인이 정서적응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37.7%였다. 정서적응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예언변인은 자녀에 대한 책임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25.7%이었다.

#### IV. 논의 및 결론

아동의 사회화에 있어서 부모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화 인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현대사회의 가족형태는 핵가족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되면서 성별에 따라 책임이 구분되던 전통적인 부모역할 분담 형태가 변모해가고 있다(정옥분 등, 1997; Woodworth et al., 1996). 즉, 전에는 어머니의 역할로만 여겨졌던 자녀양육을 아버지도 분담해야 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대두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수행이 기대되어지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 후,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수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자녀와 보내는 시간, 학교행사 참여정도, 어머니 취업형태,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젊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자녀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다정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어주기 때문에(민현숙, 1997;

박선이, 1991; 이성희와 한은주, 1998; 한경혜, 1995) 자녀의 관심사나 걱정을 잘 들어주고 칭찬이나 애정표현을 더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역할수행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내와 잘 협력하고,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잘 하고, 자녀부양 역할을 더 잘하며 자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에 있어서는 직업이 없거나 기타에 속한 아버지가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아버지에 비해서 역할수행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행정관리직이나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아버지일수록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하고 가족이 처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부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와의 대화,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를 위한 부부 협력, 자녀부양, 자녀이해, 자녀사랑, 자녀교육, 전체 아버지 역할수행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에 대해 다양하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더 애정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수행한다는 Ishii-Kuntz(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아버지와 자녀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록 아동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이연섭과 강문희, 1998) 자녀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행사 참여정도에서도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일수록 아버지 역할수행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매우 높은 역할수행 점수를 나타냈다. 아버지가 훌륭한 양육자가 되기 위해 아동에게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여(오영희와 엄정애, 1997) 아동이 다니는 학교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나타낼 때 아버지 역할수행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나 학교행사 참여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들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에서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버지 역할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경향이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 역할의 질적인 개선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나 학교행사 참여와 같은 양적인 접촉을 장려하는 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아버지 역할수행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어머니가 전시간제나 시간제 직업을 가진 경우에, 자녀가 외동아이거나 첫째일 때 아버지가 역할수행을 더 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에서는 아버지 역할수행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외동이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자녀의 성별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

준, 자녀와 보내는 시간, 학교행사 참여정도에 따른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이 대인적응, 자아적응, 전체 사회적 적응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적응 점수가 높다(이현정, 1997; 홍강의와 홍경자, 1985)는 결과를 지지한다.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가정의 아동은 사회적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동이 인지적, 정서적으로 잘 발달한다(Coley, 1998; Coosey & Fondell, 1996; Crouter, Perry-Jenkins, Huston & McHale, 1987; Downey, 1994; Thomson, Hanson & McLanahan, 1994)는 연구결과들과 관련지어 볼 때,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또한 학교행사에 많이 참여하거나 보통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의 아동 또한 사회적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아버지가 학교행사에 참여해서 자녀가 공부하는 교실도 구경하고 담임선생님과 악수라도 나눈다면 아이와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 학교생활에 관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정송, 1997b),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적인 관심과 참여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Ketsetzis, Ryan & Adams, 1998)을 강력하게 지적해 준다.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나 학교행사 참여정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한 정서적으로 잘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이나 아버지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가 맺는 양적인 상호작용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아버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셋째,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률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은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p < .001$ ). 아버지 역할수행의 하위요인들 중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사랑, 자녀교육, 자녀이해, 자녀와의 대화와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 대한 책임은 대인적응( $r=.547$ ), 정서적응( $r=.507$ )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같이 살더라도 아동 양육에 별로 참여하지 않을 때 아동이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며 지적 점수가 낮다(정승, 1997a; Blankenhorn, 1995; Brody & Flor, 1998; Mott et al., 1997; Steinberg et al., 1994)는 결과와 유사하며,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보내는 시간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oley, 1998; Coosey & Fondell, 1996; Downey, 1994; Thomson et al., 1994)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와는 다른 아버지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연구들(이주리, 1994; Amato, 1994; Baumrind, 1991; Luster & Okagaki, 1996)의 결과를 지지한다. 즉,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대인적응, 자아적응, 정서적응, 가족적응 등의 모든 면에서 사회적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버지 역할

수행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적응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및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신춘자, 1992; 임선화, 1988; 조창발, 1994; Amato, 1994; Blankenhorn, 1995; Fauber et al., 1990; Mott et al., 1997; Pettit et al., 1997; Punamaki et al., 1997; Steinberg et al., 1994; Veneziano & Rohner, 1998)는 연구결과들을 강력하게 지지해 준다.

아버지 역할수행의 하위요인들 중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사랑, 자녀교육, 자녀이해, 자녀와의 대화와 아동의 사회적 적응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 대한 책임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가족적응, 대인적응, 자아적응, 정서적응의 사회적 적응 전반에서 적응력이 높다는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 속에 '위기의 가정'이 늘면서 인륜이 무너지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가정의 부도·실직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며 이혼이 급증하고 생활고로 노부모나 어린 자식의 부양을 포기하는 비정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가장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주부는 돈벌이를 위해 윤락행위에 까지 나서는 등 사회구성의 최소 단위인 가정의 해체 위기가 현실화되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이하경 등, 1998). 또한 가출아, 부랑아, 비행아 등 문제아동이 96년에서 97년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학대받고 방치된 아동도 증가하고 있으며(박경아, 1998), 40-50대 가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들과 하루종일 전혀 얼굴을 접하지 못하거나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인 하숙생 같은 아버지가 55%로 과반수를 넘었다(신예리,

1997). 이러한 현상들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 아버지들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아버지들이 올바르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줄 필요성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아버지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기존에 운영되어오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어머니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아버지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아버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장 내에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사내연수나 휴가철 가족캠프 등에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킨다면,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자극과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사랑, 자녀교육, 자녀이해, 자녀와의 대화 등의 내용을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보강하고 부부간의 원만하고 애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의 내용도 첨가한다면,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울러 아동의 사회적 적응도를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역할수행 변인의 예측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별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으며 특히 아버지 역할수행의 하위요인들 중 가족적응, 대인적응, 자아적응, 정서적응 모두를 가장 잘 예측해줄 수 있는 변인은 자녀에 대한 책임이었다.

이들 하위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아동의 사회적 적응 전체를 가장 의미있게 설명해주는 예언변인 역시 자녀에 대한 책임이었고, 그 설명력은 36.1%로 나타나 아버지 역할수행

중 자녀에 대한 책임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전체 설명력도 54.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같이 살더라도 아동 양육에 별로 참여하지 않을 때 아동이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고(정송, 1997a; Blankenhorn, 1995; Brody & Flor, 1998; Mott et al., 1997; Steinberg et al., 1994),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보내는 시간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Coley, 1998; Coosey & Fondell, 1996; Downey, 1994; Thomson et al., 1994), 어머니와는 다른 아버지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이주리, 1994; Amato, 1994; Baumrind, 1991; Luster & Okagaki, 1996)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일치하게, 연구결과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할 때 가족적응, 대인적응, 자아적응, 정서적응의 모든 면에서 자녀의 사회적 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도 자녀양육이나 교육이 거의 어머니에게 맡겨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 학교 및 사회 풍토를 감안해 볼 때, 아버지 역할수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엄격하게 자녀를 훈육하는 아버지나 경제적 제공자로서의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녀양육에 보다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상하고 친구같은 아버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하여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수

행을 직접 평정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 아버지 자신이 느끼는 역할수행의 평가와 아울러 어머니의 입장,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행된다면 좀 더 실질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버지가 경험하는 아버지 역할수행과 더불어 어머니가 경험하는 부분도 함께 연구된다면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의 사회적 적응 척도는 '예'와 '아니오'의 두 가지 중에서 아동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동이 그렇다와 아니다의 양극단에서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느끼고 행동하는 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아동에게 적합한 사회적 적응 척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아파트가 밀집된 곳에 거주하는 중산층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업, 수입 등이 편중되어서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표집 지역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계층을 고르게 한다면 좀 더 넓은 범위의 일반화가 용이한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학생이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전생애발달적인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동의 연령을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청년기 등으로 폭넓게 확장시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은(1997).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용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숙(1996). 두자녀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심리적 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현숙(1997). 아동기 아버지의 생활만족 수준과 역할수행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아(1998, 3, 29). 기아... 학대... 버림받는 아이 갈수록 는다. 동아일보, p. 15.
- 박선이(1991, 5, 1). 5월은 가정의 달 : 아이들과 함께 노는 아빠들. 조선일보, p. 13
- 박소혜(1995). 국민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태제(1995). 현대 기초 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 양서원.
- 신예리(1997, 5, 19). 하숙생 아빠. 중앙일보, p. 12.
- 신춘자(199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영희·엄정애(1997). 부모와 자녀. 서울 : 동원출판사.
- 유안진(1986).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성희·한은주(1998).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이수자(1994). 성격의 행동특성, 사회적 적응, 학업 성취간의 관계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연섭·강문희(1998). 부모교육. 서울 : 정민사.
-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 구논문.
- 이하경·최익재·김정하(1998, 4, 27). 궁핍해진 가정 - 인륜이 무너진다. *중앙일보*, pp. 1-2.
- 이현정(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선화(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 송(1997a). 아버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서울 : 문화샘.
- 정 송(1997b). 우리집 행복지수 높이기. 서울 : 한 뜻.
- 정옥분·김광웅·김동춘·유가효·윤종희·정현희·최경순·최영희(1997). 전통 '효' 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행동. *아동학회지*, 18(1), 81-108.
- 정원식·김호권(1992). 성격진단검사. 서울 : 코리안 테스트센터.
- 정충영·최이규(1998).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 무역경영사.
-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7). *인간발달*(개정판). 서울 : 교문사.
- 조선화(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창발(1994).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적응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가족학회편(1994). *가족학 자료분석 방법*. 서울 : 하우.
- 한경혜(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 가정복지세미나(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한국가족학회 학술 심포지엄, 35-68.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종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강의·홍경자(1985).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문제 연구(I). *정신의학보*, 9(2), 48-63.
- Amato, P. R.(1994). Father - child relations, mother - child relations, and offspr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4), 1031-1042.
- Baumrind, D(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Eds.), *Family transitions*. Hillsdale, NJ : Erlbaum.
- Blankenhorn, D(1995). *Fatherless America : Confronting our most urgent social problem*. New York : Basic Books Co.
- Brody, G. H. & Flor, D. L(1998). Maternal resource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69(3), 803-816.
- Bronfenbrenner, U(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 Canfield, K. R(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s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father's life co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Coley, R. L(1998). Children's socialization experiences and functioning in single-mother households : The importance of fathers and other men. *Child Development*, 69(1), 219-230.
- Coosey, E. C. & Fondell, M. M(1996). Spending time with his kids :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fathers' and children's l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693-707.
- Crouter, A. C., Perry-Jenkins, M., Huston, T. L. & McHale, S. M(1987). Processes Underlying father involvement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31-440.
- Darling, N. & Steinberg, L.(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Downey, D. B.(1994). The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from single-mother and single-father families : Economic or interpersonal depriv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5(1), 129-147.
- Dubow, E. F. & Luster, T.(1990). Adjustment of children born to teenage mothers : The contribution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393-404.
- Dubow, E. 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6), 1412-1423.
- Elder, G. H., Jr., Van Nguyen, T. & Caspi, A.(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2), 361-375.
- Eggerichs, E. E., Jr.(1992). *A descriptive analysis of strong evangelical fa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Fauber, R. L.,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4), 1112-1123.
- Harris, K. M. & Morgan, S. P.(1991). Fathers, sons, daughters : Differential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531-544.
- Huntsinger, C. S., Jose, P. E. & Larson, S. L.(1998). Do parent practices to encourage academic competence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young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747-756.
- Ishii-Kuntz, M.(1994). Paternal involvement and perception toward fathers' roles : A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15(1), 30-48.
- Jose, P. E., D'Anna, C. A., Cafasso, L. L., Bryant, F. B., Chiker, V., Gein, N. & Zhezmer, N.(1998). Stress and coping among Russian and American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757-769.
- Ketsetzis, M., Ryan, B. A. & Adams, G. R.(1998). Family processes, parent - child interactions, and chil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school-base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374-386.
- Lamb, M. E.(1986). The Changing role of fathers. In M. E. Lamb(Ed.), *The father's role : Applied perspectives*. New York : John Wiley & Sons.
- Lamb, M. E.(1995). 아버지의 역할과 아동발달. 김광웅·박성연(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본발간일, 1981).
- Lamb, M. E., Pleck, J. H. & Levin, J. L.(1985).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 The effects of increased parental involvement. In B. B. Lahey & A. E. Kazdin(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Vol. 8, pp. 229-266). New York : Plenum.
- Lerner, R. M.(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2nd ed.)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Luster, T. & Okagaki, L.(1996). 부모 - 자녀관계 : 생태학적 접근. 박성연·도현심·정승원(역). 서울 : 학지사. (원본발간일, 1993).
- Mott, F. L., Kowaleski-Jones, L. & Menaghan, E. G.(1997). Parental absence and child behavior : Does a child's gender make a

- differ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1), 103-118.
- Papalia, D. E., Olds, S. W. & Feldman, R. D.(1991). 인간발달 1 : 아동발달. 박성연(역). 서울 : 교육과학사. (원본발간일, 1989).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Punamaki, P., Qouta, S. & El Sarraj, E.(1997). Models of traumatic experience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 The roles of perceived parenting and the children's own resources and activity. *Child Development*, 68(4), 718-728.
- Roid, G. H. & Canfield, K. R.(1994). Measuring the dimensions of effective fathering.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1), 212-217.
- Russell, G. & Russell, A.(1987). Mother - child and father - 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6), 1573-1585.
-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N. S. & Dornbusch, S. M.(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3), 754-770.
- Thomson, E., Hanson, T. L. & McLanahan, S. S.(1994). Family structure and child well-being : Economic resources versus parental behaviors. *Social Forces*, 73(1), 221-242.
- Veneziano, R. A. & Rohner, R. P.(1998).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parental involvement, and youths'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rural, biracial Southern Commun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335-343.
- Woodworth, S., Belsky, J. & Crnic, K.(1996). The determinants of fathering during the child's second and third years of life : A development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679-692.
- Youniss, J. & Smollar, J.(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 father, and friend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